

188.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

(55) 습도와 자외선에 의해 코팅이 분리된 차광커튼

□ 습도와 자외선에 의해 코팅이 분리된 차광커튼

해설)

- 클리닝을 했는데, 외부로부터의 광선에 의해서 그물모양으로 빛이 새는 상태가 되었음.
- 이 제품은 안감에 차광을 목적으로 폴리우레탄 수지가 코팅되어 있지만, 폴리우레탄은 자외선과 고온 다습한 조건하에서 가수분해가 촉진되어 제조 후 3~5년 정도면 현저하게 열화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이 경우 이미 열화되어 있던 수지가 클리닝을 하면서 세정시 기계작용으로 박리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됨



- 제품 용도로서 외부와의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커튼이기 때문에 실내측은 냉난방의 영향으로 결로가 발생되기 쉽고, 습기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또한, 외부

로부터의 영향으로는 차광목적으로 빛을 흡수하는 기능을 부여하게 되므로 이러한 특성으로 자외선을 많이 흡수하게 됨.

- 그러므로 이러한 제품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소재 선택시 자외선과 수분에 의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화될 수 있는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자료출처 : 송종욱 역,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 한국세탁업중앙회, 2011

www.textilecare.kr